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설화에 나타난 감각적 잔존과 물질적 귀환, 그리고 애도 형상*

한유진**

〈차 례〉

1. 서론
2.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설화의 자료 검토
3. 통과 의례 실패로 인한 정지된 시간
4. 의례 재수행을 통한 시간의 회복
5. 결론을 대신하여 : 끝내 애도되지 않은 상실

〈국문초록〉

본고는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설화에서 혼례가 중단됨으로써 신부와 신랑이 겪은 상실이 애도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어떠한 물질적 형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신부는 ‘정지된 신부’와 ‘변신한 신부’ 형상으로 나타났다. ‘정지된 신부’는 혼례가 중단된 순간에 고착화된 모습으로써 혼례의 실패와 장례의 부재, 그리고 공동체의 외면이 서로 얽혀 물질적으로 응결된 결과이다. ‘변신한 신부’는 신부의 억울함과 원한으로 인한 복수심이 신체를 매개로 형상을 변형시키며 감정이 물질로 귀환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신부는 ‘정지된 신부’의 형상으로 애도되지 않은 사건을 증언하며 공동체에 책임을 환기하고, ‘변신한 신부’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원한을 폭발시켜 공동체에 응답을 요청한다.

한편 신랑의 경우 상실은 ‘내면 불안이 외부화’되고 ‘과거가 소환’되는 형태로 나

* 이 논문은 2025년 8월 19일 ‘애도의 물질성, 그리고 고전문학’이라는 기획 주제로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지정 토론을 통해 귀한 조언을 해주신 김신정 선생님과 좌장 홍인숙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주신 김정은 선생님께서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이 글의 분석을 보완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신 신동훈 선생님께 특히 깊이 감사드린다.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타난다. 신랑에게 위협과 상처로 각인된 혼례 실패는 해소되지 않은 잔영으로 남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잔존으로 남아 있다. 이야기에서 신랑은 곧 죽을 관상이거나 평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괘를 받는데, 이는 애도되지 못한 상실이 물질적으로 귀환하여 현재에 스며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부의 동네를 지나는 신랑의 행로는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매개로 작동하며, 소환된 기억은 현재의 공간에 겹쳐지면서 시간의 주름 속에 재배열된다.

이처럼 신랑과 신부는 중단되었던 통과 의례의 재수행을 통해 상실의 상황을 애도하고 사회적 위치와 단절된 시간을 회복하게 된다. 신랑과 동침한 신부는 다음날 아침 소복한 뻘로 남게 되고, 신랑은 이를 수습해 장례를 치르는데, 이는 죽음을 사회적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애도 절차를 완결하는 행위로 기능한다.

한편 일부 각편에서는 애도의 불가능성을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신랑은 자신의 자리에 허수아비를 세우며 신부와 직접적인 대면을 회피한다. 이로써 신부는 끝내 혼례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채 상실이 물질화된 형상으로 소멸하고, 신랑의 상실은 망각으로 봉합되면서 애도가 성립되지 못한 국면을 보여준다.

주제어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상실, 애도, 변신, 원혼, 감각적 잔존, 물질적 귀환, 통과 의례, 물질성, 신유물론

1. 서론

본고는 설화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를 대상으로 혼례가 중단됨으로써 신부와 신랑이 겪은 상실이 애도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어떠한 물질적 형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애도는 상실을 마주하고 그로 인해 소외되었던 삶의 일부를 자각하며 누락된 일상을 회복함으로써¹⁾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합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이다. 이 과정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상실을 승인하고 삶의 질서 속에 재배치하는 통과

1) 박우란, 『애도의 기술』, 유노라이프, 2023, 전자책, 12% 참고.

의례로서, 단순한 정서적 위로를 넘어 물질을 매개로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애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실은 감각적·물질적 형태로 잔존하여 해결되지 못한 채 현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상실과 애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성의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²⁾ 이러한 맥락에서 애도 서사는 인간과 비인간, 즉 신체·사물·환경이 얽혀 작동하는 역동성 속에서 파악할 때³⁾ 이야기 속에서 상실이 어떻게 서사화되는지를 온전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설화는 혼인 첫날밤 신부에게 정인(情人)이나 간부가 있다고 오해한 신랑이 신부를 신방에 버려두고 떠난 뒤, 신부가 그날의 모습 그대로 정지된 형상으로 남아있거나 호랑이, 구렁이 등의 동물로 변신하는 이야기이다.⁴⁾ 이 서사는 혼례의 중단으로 신부와 신랑이 사회적·의례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상실’이 애도되지 못한 상황을 다루며, 그 결과가 감각적·물질적 차원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간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는 대체로 원혼 서사의 자장 안에서 해원의 형상이 뿔가루로 화하는 ‘사그라진 신부’ 유형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

-
- 2) 여기서 ‘물질성’은 신유물론에서 논의되는 개념을 참고한 것으로, 인간과 비인간이 얽혀 형상화되는 서사적 층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버라드의 관점은 이러한 맥락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므로, 본고에서 주로 참고하였다.
 - 3) 버라드는 대상(사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얽힘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낚, 2024, 전자책, 79~80% 참고.
 - 4)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가 주인공인 서사 중 혼인 첫날밤 신부의 정절에 대한 의혹으로 신랑이 신방을 떠났다가 신부의 적극적 행동으로 곧 오해를 풀고 돌아오는 각편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유형으로 다루지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상실과 애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혼례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곧 재개된다는 점에서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부가 죽거나 동물로 변신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실이 전제되는 서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다. 특히 혼례가 중단된 첫날밤의 상태로 멈춘 ‘신부의 형상’이 연구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는데, 직접적 발화가 아닌 이미지를 통해 존재를 드러내는 ‘원혼의 형상’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즉 이 유형에서 신부의 형상은 물리적 시간을 거스르며 원혼의 심리적 공간과 ‘경계적 존재’ 양태를 함축하는 것으로,⁵⁾ 이는 상징이나 은유를 통한 ‘간접적 말하기’ 방식으로 분석되었다.⁶⁾ 이처럼 원혼의 직접적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음은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해원의 소극성’으로 논의되거나,⁷⁾ ‘온몸으로 침묵’하며 말할 수 없는 사건임을 표상한다고 해석되기도 하였다.⁸⁾ 한편 신부의 형상을 서사적 정체성의 개념으로 접근한 경우 이를 문제 해결을 위한 존재적 속성의 변화로 해석하였으며,⁹⁾ 신앙적·종교적 관점에서 이해한 경우에는 통과례의 완성을 통해 집단적 차원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¹⁰⁾ 이와 함께 ‘사그라진 신부’와 달리 ‘적극적 발화와 행위성이 드러나는 신부’에 주목하면서 여성인물의 대응 방식과 해결 과정을 부각한 연구도 있었다.¹¹⁾

이처럼 이 유형 설화에 대한 기존 논의는 대체로 원혼의 형상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물질적 차원의 중요성을 일정 부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5) 강진옥,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 -<아랑형>과 <사그라진 신부원귀>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6) 강진옥,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7)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8) 김영희, 「남성 주체의 결핍과 상실을 대리 표상하는 ‘사그라진 신부(新婦)’」,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9) 권도영, 「복수하는 여성 원혼의 서사적 정체성」, 『여성문학연구』 59, 한국여성문학회, 2023.

10) 김영호, 「귀신설화의 서사 구조와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1) 남기민,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이야기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64, 우리문학회, 2019.

보인다. 이는 곧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물질성이 유용한 해석적 관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 설화의 문제적 국면이 혼례 실패라는 ‘상실’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이 이야기를 ‘애도’의 차원에서 재독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혼례 실패의 당사자임에도 논의에서 배제되어온 신랑의 위치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피해자 신부-가해자 신랑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해체함으로써 신랑 역시 신부와 마찬가지로 상실의 당사자로 주목해야 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실과 애도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물질적·사회적 조건들이 교차하고 얽히는 장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이 설화 속 비인간 존재의 등장과 이야기 속 다양한 요소들의 얽힘으로 형성된 상실과 애도의 문학적 형상은 물질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 서사적 의미가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이는 물질성을 경유해야만 포착할 수 있는 서사적 층위를 드러내고, 인간 중심의 의미망 속에서 해석되어온 비인간 존재를 새로운 서사적 의미를 생성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부와 신랑 모두가 혼례 실패로 인한 상실이 애도되지 못했을 때 그 상실이 어떻게 물질적으로 형상화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의 자료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혼례의 실패로 인한 상실이 신부와 신랑에게 어떠한 물질적 형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중지되었던 의례가 재수행됨으로써 상실이 애도의 형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필 것이다.

2.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설화의 자료 검토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14편을 찾을 수 있으며 각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¹²⁾

[표 1]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각편 정보

각편 번호	대계 번호	쪽수	각편 제목	제보자 정보
<1>	2-8	445~450	신부의 한을 풀어 주고 베풀한 사람	고근록(남,71)
<2>	3-4	788~793	첫 날밤에 억울하게 죽은 원귀	박복란(여,52)
<3>	6-5	348~352	호랑이가 된 신부	김달심(여,53)
<4>	7-6	86~91	첫날밤에 원한을 산 사람	문문희(여,34)
<5>	7-6	588~593	신부의 원한	조유란(여,72)
<6>	7-7	605~612	원혼이 된 신부	최봉선(여,70)
<7>	7-11	758~761	소박당한 부부를 화해시킨 봉사	이점선(여,63)
<8>	8-2	264~270	말 못할 사연	김주약(여,78)
<9>	8-2	38~41	신부의 원혼	양말선(여,56)
<10>	8-4	663~673	신부 원혼을 달래 준 신랑	주덕수(남,60)
<11>	8-9	329~330	소박당한 신부	김의순(여,58)
<12>	8-9	949~954	소박당한 여자	한길석(남,60)
<13>	8-13	456~457	신부의 한	우두남(여,72)
<14>	8-13	595~598	원혼이 된 아내를 살린 남편	우두남(여,72)

이 유형은 14편 가운데 여성화자본 11편, 남성화자본 3편으로, 여성화자들이 특히 즐겨 구연한 이야기임이 확인된다.¹²⁾ 이는 정절에 대한 의혹만

12) [표 1]에 제시된 각편들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 2-8 강원도 영월군 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445~450쪽; 김영진, 『한국구비문학대계』 3-4 충청북도 영동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788~793쪽; 이현수, 『한국구비문학대계』 6-5 전라남도 해남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348~352쪽; 조동일·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6 경상북도 영덕군 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86~91쪽, 588~593쪽; 조동일·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7 경상북도 영덕군 편(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605~612쪽; 최정여, 『한국구비문학대계』 7-11 경상남도 군위군 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758~761쪽; 정상박·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 8-2 경상남도 거제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38~41쪽, 264~270쪽; 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 8-4 경상남도 진주시·진양군 편(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663~673쪽;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경상남도 김해시·김해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329~330, 949~954쪽; 정상박·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경상남도 울산시·울주군 편(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456~457쪽, 595~598쪽.

으로도 혼인이 파탄나고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 있는 여성인물의 현실을 여성화자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는 신랑에게 소박당한 신부가 죽음 이후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정지된 신부’ 유형과 ‘변신한 신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지된 신부’ 유형은 신부가 혼인 첫날의 모습 그대로 혼례복을 입고 죽두리를 쓴 채 신방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이며, ‘변신한 신부’ 유형은 신부가 호랑이, 구렁이, 여우 등으로 형상을 바꾸어 등장하는 이야기이다.¹⁴⁾ 두 유형의 서사단락을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지된 신부’ 유형

- 1-1. 혼인 첫날밤 신랑이 문지방에 비친 수숫대 그림자를 신부의 간부로 오해하다.
- 1-2. 혼인 첫날밤 신랑이 신부 계모의 계약으로 신부에게 간부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다.
2. 신랑은 그 즉시 신방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
- 3-1.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신랑은 그 동네를 지나다가 궁금해져서 가보다.
- 3-2. 과거길(자식의 죽음)에 본 점사에서 신부의 원한으로 낙방할 것임을 들은 신랑이 혼례 당시의 신방을 찾아가다.
- 3-3. 신부의 집이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보다.

13) 이는 실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남녀 화자본의 비율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설화 14,866편 가운데 여성화자본은 2,988편으로 전체 이야기의 20.1%를 차지한다. 김대숙,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성체보자 구연설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9, 2003, 한국고전연구학회, 229쪽 참고.

14) 이 유형에서 ‘정지된 신부’ 유형 7편, ‘변신한 신부’ 유형 7편으로 그 비중은 같다. [표 1]에서 ‘정지된 신부’ 유형은 각편 <1>, <6>, <9>, <10>, <11>, <13>, <14>이며, ‘변신한 신부’ 유형은 <2>, <3>, <4>, <5>, <7>, <8>, <12>가 해당된다. 두 유형의 비중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남기민은 여성인물의 적극적 발화와 행동을 지지하고 공감한 향유층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고 논의하였다. 남기민(2019), 앞의 논문, 277쪽 참고.

- 4. 신부가 살던 마을은 폐읍이 되고 신부의 방만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 5. **신방을 열어보니 신부가 혼인 첫날밤 모습 그대로 앉아있다.**
- 6. 신랑은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동침하다.
- 7. 신랑은 동침 후 신부가 누워있던 자리에 뼈가 소복히 쌓여 있는 것을 보다.
- 8. 신랑은 신부의 유골을 수습하여 매장해준다.
- 9. 신랑이 잘 살게 되다.

■ **‘변신한 신부’ 유형**

- 1-1. 혼인 첫날밤 신랑이 문지방에 비친 파초 그림자를 신부의 간부로 오해하다.
- 1-2. 혼인 첫날밤 신랑은 신부가 너무 잘나서 간부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다.
- 1-3. 혼인 첫날밤 신랑은 신부가 박색이라 소박하다.
- 2. 신랑은 그 즉시 신방에서 뛰어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다.
- 3-1. 신랑은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지나가던 도승에게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다.
- 3-2. 신랑은 과거길에 비를 피한 곳에서 신부의 원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 3-3. 세월이 한참 흐른 후 신랑은 혼례 당시 신부가 살던 동네를 지나다가 궁금 해져서 가보다.
- 4. 신랑은 도승에게 살 방도를 묻고 신부의 집에 찾아가다.
- 5. 신부가 살던 마을은 폐읍이 되고 신방만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 6. **신부는 호랑이(구렁이, 여우)로 변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 7-1. 신랑은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동침하다.
- 7-2. 대승이 일러준 방도에 따라 사가지고 간 장닭이 새벽이 되자 울다.
- 8-1. 변신한 신부가 사그라져 죽다.
- 8-2. 신부가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다.
- 9-1. 신부의 장례를 지내고 신랑이 잘 살게 되다.
- 9-2. 사람이 된 신부와 신랑이 잘 살다.

두 유형 모두 대부분 혼인 첫날밤, 신랑이 신부에게 간부가 있을 것으로

오해하자마자 신방을 급히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각편에서는 신부가 박색이거나 신랑의 이유 없는 기피가 소박의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5>, <12>). 이때 신부의 정절 의혹은 신랑의 착각이거나 신부 계모의 간계로 인한 것으로, 신랑은 간부의 존재를 확신하며 신부에게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은 채 신방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부는 신랑이 급작스레 떠나버린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신방 문을 걸어 잠그는데, 세월이 흐른 뒤 신랑이 신부를 찾아갔을 때 마을은 이미 폐읍이 되었으나 그 신방만은 온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떠났던 신랑이 오랜 세월이 흘러 신방을 다시 찾은 이유는 대체로 신랑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것이라는 예언으로 나타나는 가운데(<1>,<2>,<3>,<4>,<5>,<11>), 막연한 궁금중(<6>,<7>,<8>,<14>), 신부 원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9>,<10>,<12>) 등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즉 신랑은 과거를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일상의 균열이나 외부의 자극을 계기로 신부를 다시 떠올리고 신방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신랑이 마주한 신부의 형상에 따라 서사는 두 갈래로 분기된다. 먼저 ‘정지된 신부’ 유형에서 신부는 혼인 첫날밤 모습 그대로 신방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랑은 신부를 마주하고 진심을 다해 용서를 빌고 동침하는데, 이는 대체로 서사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각편에 따라 신부의 요구로 성사되기도 한다(<1>,<12>). 이때 신부는 동침 외에도 100일 불공을 요청하거나(<14>), 사건의 진상을 원에게 가서 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1>). 이는 자신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공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동침 후 신부는 재로 사그라지거나 소복히 쌓인 뼈로 남으며, 신랑은 이를 수습하여 매장하는 것으로 서사가 귀결된다.

한편 ‘변신한 신부’ 유형에서 신부는 주로 호랑이로 등장하지만

(〈2〉,〈3〉,〈5〉), 구렁이(〈7〉,〈12〉), 여우(〈8〉)로 제시되기도 한다. 신부의 동물 변신은 대체로 죽음 이후의 상태로 묘사되지만, 일부 각편에서는 소박 이후 10년간 공을 들여 변신에 이르는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3〉,〈7〉). 이 과정에서 얼굴만은 아직 구렁이로 변하지 않은 상태처럼 동물로 변해가는 중간 단계가 포착되기도 한다(〈3〉,〈12〉). 신부가 동물로 변신한 까닭은 신랑을 해치고자 함이었으나, 신랑이 정성을 다해 용서를 구하고 동침이나 10년간 흘린 눈물을 마시라는 등의 신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신부는 재로 화하거나 허물을 벗고 인간으로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서사가 귀결된다. 이때 인간 모습으로 복귀하는 서사는 특히 신부가 ‘구렁이’로 변신한 각편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재생’을 현시하는 문학적 형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⁵⁾ 즉 소박맞은 신부는 사회적으로 죽은 상태에 해당하므로 이를 벗어난 상태는 사회적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일부 각편에서는 신랑이 자신의 위험을 경고한 인물에게서 전해들은 방비책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신랑은 목숨을 건지지만 신부는 애통해하며 죽거나 사라지는 모습으로 서사가 마무리된다(〈2〉,〈4〉).

3. 통과례 실패로 인한 정지된 시간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는 혼인 첫날밤 신랑의 오해로 혼례가 중단되는 사건에서 출발한다. 혼례는 한 개인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의무를 부여받는 중요한 통과례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관계는 재조정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며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15) 구렁이가 등장하는 변신 설화에서 존재적 전환을 형상화할 때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인간으로 변하는 설정은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구렁이당신신비>, <상사뱀> 설화가 있다.

자리매김하는 사회적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서는 혼례가 완성되지 못함으로써 신랑과 신부는 의례의 경계에 갇힌 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게 된다.¹⁶⁾ 이러한 경계 상태에서 두 인물이 경험한 상실은 애도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그 결과 신랑과 신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멈춘 시간 속에 매여있게 된다. 이야기에서 애도되지 못한 시간은 신부의 경우 ‘정지된 형상’과 ‘변형된 존재’로 나타나고, 신랑의 경우 ‘내면의 불안이 외부화’되고 ‘과거가 소환’되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3.1. 신부 : 정지된 형상과 변형된 존재

혼인 첫날밤에 이유도 모른 채 신랑에게 소박당한 신부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제된다. 이는 서사에서 여성의 혼인 실패라는 상실의 경험은 애도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부인은 자기 남편 귀한 거라고 이거를 잡아서 해준다고 (.....) 그 문어를 잡았드랍니다. 잡았는데 집에 돌아오게, 옛날에 어른들은 서방님한테 소박 맞았다카만 딱 안 불러합니다. 근데 고만 이 여자는 고만 오도가도 못하고 고만 문을 안으로 딱 잠그고 (.....) 마 밖에서 아무리, “문을 열으라.”케도 안 열어주고 또 역시 저런 소박 맞은 딸을 내놔봐도 웃음거리 밖에 안 된게 죽거나 말거나 놔둔 거라요. (.....) 고만 그대로 놔뒀으니 그 사람이 죽어서 고만 사가리 귀신이 됐는 기라요.

-〈2〉, 790~791쪽.

16) 이러한 경계 영역은 빅터 터너의 ‘리미널리티(liminality)’ 개념을 참고한 것이다. 터너에 따르면 이러한 경계 영역 속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이전의 권리와 의무가 중단되며 사회적 질서가 전도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의례의 입사자들은 확일성, 불가시성, 익명성 쪽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빅터 터너, 『제의에서 연극으로』, 이기우·김익두 옮김, 현대미학사, 1996, 44~45쪽 참고.

위 인용문에서 신부는 신랑의 몸보신을 위해 집안으로 들어온 문어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으나 신랑은 이미 말 없이 사라져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신랑은 창호지에 비친 문어 그림자를 중 머리로 착각하고 그것을 신부의 간부로 오해한 것이다. 이는 신랑이 신부의 실재보다 그림자와 같은 물질적 흔적을 먼저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신부는 신랑에게 인격적 존재로 사유되기보다는 사물로 호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문도 모른채 버림받은 신부는 ‘옛날 어른들은 안 보려고 한다’는 말이 함축하는 것처럼 사회적 통념상 용납되지 않은 존재가 된다. 이에 신부는 문을 걸어잠근 채 침묵하는데, 가족들은 ‘소박맞은 딸을 내놔봐도 웃음거리 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그녀가 방에서 홀로 죽어가는 것을 방치한다. 이처럼 신부의 죽음은 성차별적 통념, 가족의 외면, 공동체의 낙인이 고립된 공간이라는 물리적 조건과 결합하여 물질적·담론적으로 얽히며 형성된 결과인 것이다.¹⁷⁾

그런데 신부는 죽어서도 애도되지 못한다. 혼례가 중단되면서 신부는 ‘아내’도 ‘미혼여성’도 아닌 경계적 존재가 되었고, 이러한 위치성은 혼례 실패라는 상실을 애도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¹⁸⁾ 그 결과 죽음 이후에도 신부는 애도되지 못한 채 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애도의 부재 속에서 죽음마저 장례로 승인되지 못하는 상실이 더하여 얽히면서

17) 이는 바라드가 말한 ‘얽힘’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 이때의 ‘얽힘’은 인간과 비인간, 담론과 물질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얽혀 드러나는 것이다. 박준영,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 그린비, 2023, 410쪽 참고.

18) 신부의 이러한 위치성은 다음 김영희의 논의를 통해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결혼이라는 입사의례를 통해 ‘신부’라는 호명에 응답하는 순간 그녀는 이미 가부장적 질서에 포획당한 존재로서 그 영토 바깥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녀에게 다른 가능성들은 이미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가부장적 규범에 순응하고 그 질서에 포획당한 채 살아갈 것에 동의한 대가로 그녀는 ‘신부’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그 이름을 얻는 순간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들이 닫혀 버렸기 때문이다.” 김영희(2011), 앞의 논문, 350쪽.

신부는 죽음 이후에도 감각적으로 잔존하는 형상으로 재현된다. 즉 다음 인용문에서와 같이 혼례날 밤 모습이 ‘정지된 신부’로 나타나는 것이다.

찾아 가이께네, 본택집에 가이께네 문을 딱 잠고 놓고 그 고 방에 고양이 딱
죽두리 딱 싸고, 고양이 이불 딱 깔은 고양이 배개 나온 고양이 딱 [청중 :
죽어 앉아 있구마.] 어데 마 죽도 안 하고 살아 가지고 [청중 : 밥은 묵고?] 어데
밥도 묵도 안 하고 고양이 딱 요리 있거든.

-〈11〉, 330쪽.

위 인용문에서 신부는 ‘이불’과 ‘배개’가 놓인 신방에서 ‘죽두리를 쓰고’ 혼인한 첫날밤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밥도 안 먹고’ ‘죽지도 않은’ 채 같은 자세로 고정된 모습은 혼례가 중단된 순간을 시각화한다.¹⁹⁾ 이러한 형상은 혼례의 실패와 장례의 부재, 그리고 공동체의 외면이 서로 얽혀 물질적으로 응결된 결과이다. 이는 공동체가 신부를 ‘애도할 자격이 없는 존재’로 규정하며 경계를 짓고 배제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²⁰⁾ 이렇게 애도 불가능한 존재가 된 신부는 정지된 형상으로 잔존하며, 신랑과 공동체 등 애도의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혼례날로 고착된 신부의 모습은 애도되지 않은 상실을 시각화하며,²¹⁾ 그 상실을 현재로 소환함으로써 이를 외면했던 신랑

19) 이처럼 일상적 현실을 벗어나면서도 그에 결박된 이중성을 보여주는 신부의 형상은 다음 강진옥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강진옥은 “원혼 형상의 특이성을 그가 일상적 현실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반면, 원혼이 주장하는 바는 그의 의식세계가 여전히 생물학적 삶을 유지할 때 소속되었던 일상적 현실에 강하게 결박되어 있음을 역설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강진옥(2001), 앞의 논문, 30쪽.

20) 이러한 ‘경계를 짓고 배제하는’ 행위는 버라드가 논의한 ‘행위적 절단(agential cut)’에 해당한다. 행위적 절단은 특정 요소를 배제하는 것으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함께 얽힘 속에서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지고 필연적으로 배제를 수반한다. 박준영(2023), 앞의 책, 408쪽 참고.

21) 강진옥은 이처럼 시간성을 거역한 신부의 형상을 ‘일상적 시간 체계외의 무관한 내면

과 공동체가 그 결과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편 호랑이, 구렁이, 여우 등 다른 존재로 ‘변신한 신부’ 역시 혼례가 중단된 사건에 붙들려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소박당한 그 순간부터 신부의 시간은 미래로 흐르지 않고 그 순간에 결박된 채 순환한다.

그래서 인자 그 큰애기가 인자 그날 저녁에 신랑 가분 날 저녁에 짚 한 주먹 쥐고 (……) 산신령으로 밤에 올라갔어. 큰 바위 밑에서 그렇구 공을 디렸드라우. 산신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 보갯이(양갯음)를 할라고 공을 드렸어. (……) 산신령이 되게 해주라고 물만 떠놓고 아무 것도 안 묵고는 그라고 있는디, (……) 좋은 큰애기를 갖다가 그 유명을 썩불고 돌아서 올 떠게 그 큰애기가 그 질로 가서 십년 공부를 하고 있다고, 다 돼갯고 앞 발만 지금 안 꾸부렸은게 글제, 앞발만 꿰어부면 당신 금방 호식해 간다고. 앞 발하고 입하고만 덜 됐다고.

-<3>, 349~351쪽.

위 인용문에서 신부는 ‘신랑이 간 날 밤’에 ‘산에 올라’ ‘큰 바위 밑에서 산신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이는 신랑에게 ‘양갯음’을 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하려는 행위로, 소박당한 순간에 결박된 시간이 복수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재조직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신부의 억울함과 원한은 ‘호랑이’로의 변신이라는 물질적 변화를 일으킨다.²²⁾ 즉 신부는 10년 동안 ‘호랑

적 심리 공간’이며, ‘신부의 풀리지 않는 억울함, 한스러움, 해소되지 않은 의식의 응결 상태’로 해석하였다. 강진옥(2001), 앞의 논문, 26~27쪽 참고.

22) 이러한 호랑이로의 변신력은 제인 베넷이 말하는 ‘사물의 힘(thing power)’의 개념을 참고하면 그 본질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베넷은 사물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 단순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형하고 새로운 배치 속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생기(vitality)를 지닌 행위자로 보았다. 몸문화연구소, 『신유물론』, 필로소픽, 2023, 118쪽; 심귀연(2024), 앞의 책, 전자책, 54% 참고.

이가 되기' 위한 수행에 매진하여 서서히 형상을 바꾸어가고, 마침내 '앞발'과 '입'만을 남겨둔 채 거의 완전한 호랑이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는 복수심이 신체를 매개로 형상을 변형시키며 감정이 물질로 귀환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²³⁾

몸을 바꿔 귀환한 신부가 발산한 분노와 억울함은 신랑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녀의 몸에 응축된 원한과 힘은 다음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파급력으로 발현된다.

그러이 이기 못 된 배미가 돼 노이 집에서러 한 번 요동을 치면, 마 온 동네 사람이 다 놀래고, 집안 사람 놀래는 거는 물론이고, 이 나와서러 뭐 해곳이 할까 싶어서러 지 동네 사람도 겁을 내가 이래간 안 된다고 (.....) 이기 밤만 되든 인제 우네. 우는데, 이놈의 소리는 마치 산이 켜지는 소리가 나고, 천둥치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이 온 동네 사람이 다 놀래는 판이라.

-〈12〉, 950쪽.

위 각편에서 '구렁이'로 변신한 신부의 울음소리는 '산이 켜지'고 '천둥 소리'로 인식될 만큼 강력하게 확산되며 이 소리로 인해 '온 동네 사람이 다 놀랜다. 이것이 뱀으로 변신한 신부의 울음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 뱀이 '나와서 해꼬지 할까 싶어서' '겁을 내고 공동체는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잠식된다. 이는 마을 사람 전체를 과거의 시간 속으로 끌어들이며, 그들이 은폐하고 외면했던 상실을 현재의 시공간에 재소

23) 이는 원형 개념으로서의 변신이 지닌 성격과도 연결된다. 최원오는 변신이 형태, 의지, 존재의 문제를 담고 있으며, 이것들의 결합이 변신 서사가 추구하는 미학적 원리라고 논의하였다. 즉 변신은 몸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고, 이는 본래의 몸이 갖지 못했던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의지의 개입을 전제로 하며, 변신한 형태는 그 세계에 적합한 존재로 인정받는 조건이 된다. 최원오, 「원형 개념으로서의 변신에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특성과 변신 미학」,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학회, 260~277쪽 참고.

환하는 기능을 한다.²⁴⁾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신부의 파급력은 ‘변신한 신부’ 유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다룬 ‘정지된 신부’ 유형에서도 마을은 축대밭이 되고 오직 신부가 앉아있던 방만이 온전히 남아 있음으로써 신부를 둘러싼 사건이 마을에 미친 영향을 드러낸다. 이처럼 신부는 공동체를 사건의 영향권 속에 가두며 애도되지 않은 상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음을, 그리고 그 부채가 폭발적인 형태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요컨대 서사 속 신부의 두 형상은 혼례 실패라는 동일한 사건에서 기인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현재의 시공간에 출현한다. 정지된 신부는 애도되지 않은 사건을 증명하며 공동체에 책임을 환기하고, 변신한 신부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원한을 폭발시켜 공동체에 응답을 요청한다.²⁵⁾

3.2. 신랑 : 내면 불안의 외부화와 과거의 소환

이 이야기에서 신랑의 혼례 실패는 본인의 착각과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그 오해가 해명되지 않은 채 덮여버리면서 그 상실은 애도되지 못하였다. 즉 실제 사실이 아니었지만 신랑은 신부에게 간부가 있다고 믿

24) ‘신부의 울음소리’는 권도영이 다음과 같이 논의한 ‘사회적 발화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권도영은 소박당한 신부의 억울함은 세상을 향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지만, 신랑의 첫날밤 도망은 개인의 어리석음이라기보다 첫날밤 신부는 완전무결한 존재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작동한 결과로 보았다. 그러한 고정된 인식은 방문에 비친 나뭇잎의 그림자만 보고도 간부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게 만들었으며, 신부는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여 세상을 향해 절박한 울음을 토해낸 것으로 해석하였다. 권도영(2023), 앞의 논문, 23쪽 참고.

25) 이는 동일한 사건이 파동처럼 굴절하며 서로 다른 효과를 산출하는 버라드의 ‘회절(diffraction)’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신부의 이중적 존재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차이를 창출하는 회절적 귀환인 것이다. 심귀연(2024), 앞의 책, 전자책, 85~87% 참고.

있고 일부 각편에서는 그 간부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암시까지 제시된다. 이러한 의심은 신랑의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당대 혼인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얼굴도 모른 채 첫날밤에 합방해야 하는 관습과 조혼이 보편적이었던 환경 속에서 신부의 집은 신랑에게 낯설고 경계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이는 신랑의 불안을 더 증폭시켰을 것이다. 즉 신랑의 착각으로부터 비롯된 오해는 이러한 제도적·관습적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과 관습, 그리고 인간의 본성 사이의 괴리가 결국 신랑과 신부의 결연 실패를 가져온 것이다. 그 결과 신부는 혼례를 다시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관습적 조건 속에서 필연적으로 한을 남기게 되었고, 신랑 역시 중단된 혼례가 남긴 책임과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혼례 실패는 신랑에게 위협과 상처로 각인된 사건이 되었다. 이후 신랑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이행하며 삶을 이어가는 듯 보이지만, 해소되지 않은 사건은 잔영으로 남아 다양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출몰한다.

그 사람은 내중에 과거를 인제 과갯 불라고 인제 떠억 지나가는 길이
에요. 지나가 가니까 그 노인이 있거든요. (……) 그래 인제 그래, 과거를 보지
말라 이랜단 말여. (……) 시방 그 사람이 여자가 죽어서 원이 돼가지고
자기의 뒤를 따라 땡겨서, 저 원이 있어 뒤에 따르니깐 암만 땡게도 과갯
못한다. 집으로 들어 가라 이기야.

-〈1〉, 447~448쪽.

위 인용문은 시간이 흐른 뒤 신랑이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점쟁이에게 본 점사에서 ‘신부가 죽어서 원이 돼가지고’ 그의 ‘뒤를 따라 다니니’ ‘아무리 과거를 다녀도 급제하지 못한다’는 점괘를 받는 장면이다. 이는 신

량이 묻어두었던 당시의 사건이 소멸되지 않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잔존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잔존한 물질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필연성을 드러내며 현재에 개입해 과거의 위협과 상처를 직면하게 한다. 이러한 과거의 잔영이 현재의 삶을 옴아매고 있음은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래 참 그 사람은 딴 데 장가들어 가주고, 인제 아들 딸 놓고 잘 살아요. 잘 살고 있는데, 하루는 참 어떤 대사가 (……) 시주하로 이래 외기주구서, 이래 이래 보디마는, “참 환경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다마는.” 크고 가그덩, (……) “그 사람은 좋고 다 좋은데, 좋지마는 키는 그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러이게네, “그런 일이 옛날에 있기는 있었구마는.” 카면 또 가그덩. (……) 천상 자기는 옛날에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살아도 수십 년을 살아도 그게 늘 마음에 걸리거덩. 마음에 걸리고, ‘내가 어예 안 죽고 왔는구?’ 싶우고. 그렇그덩. (……) 그러이께, “그래 당신이 죽을따.”고

-<4>, 88~89쪽.

위 인용문에서 신랑은 ‘다른 곳에 장가들어’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혼인 첫날밤 신방을 뛰쳐나왔던 사건이 ‘수십 년을 살아도 늘 마음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마음 한켠에 잠복해있던 불안과 꺼림직한 시주 받으러 온 대사의 발화를 통해 표면화된다. 즉 대사는 신랑 얼굴을 보고 ‘환경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다마는’ 과거에 일로 머지않아 신랑이 ‘죽을 것’을 예언한다. 이야기에서 이는 대사의神通력을 드러내는 장치라기보다는 과거가 되지 못한 기억이 현재의 얼굴에 감각적으로 새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신랑의 얼굴은 상실의 상처가 영겨붙어 ‘죽음이 따라다니는 얼굴’로 서사화된다. 이는 애도되지 못한 상실이 물질적으로 귀환하여 현재에 스며든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잠복해있던 상실의 기억은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럼 특정한 공간을 매개로 귀환하기도 한다.

십 년만에 그 길로, 처가 동네 그 길로, 장개를 인자 새로 치치(娶妻)를 해서, 장개를 다시 가 가이고 살다가, 할 일이 있어서 그 동네를 지내갈 끼라(것이라). 그 처갓집을 쳐다 보인께 마, 다 내려앉아 빠리고 저거 각시 있던 별당만 쪼끔 남아 갖고 있다 말이지. 그래 가만 가다가, 그 옛날 일이 우뚝(문득) 생각히서 가만 앉았다. 귀경을 하지. 귀경을 하다가, 그 동네를 인자 몬 지내가고 인자 들었어(들어갔어).

-<8>, 267쪽.

위 각편에서 신랑은 ‘새로 장가를 다시 가 살다가’ 우연히 과거 ‘처갓집 동네를 지나게’ 된다. 이는 ‘옛날 일을 문득’ 떠올리게 하며 그 기억은 ‘그 동네를’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들어가’게 만든다. 이처럼 현재 신랑의 행로는 과거 기억을 소환하는 매개로 작동하며, 소환된 기억은 현재의 공간에 겹쳐지면서 시간의 주름 속에 재배열된다.²⁶⁾ 따라서 신랑이 과거의 장소로 향하는 행위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중요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4. 의례 재수행을 통한 시간의 회복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에서는 신랑이 오래 전 떠나왔던 신부에게로 다시 향하면서 두 인물이 겪었던 상실은 뒤늦게나마 애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²⁷⁾ 이때 애도의 절차는 혼례와 장례라는 의례를 통해 중단되었던 통

26) 이는 버라드의 시공간 개념에 대한 박준영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과거를 이미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얽힘 속에서 시공간의 다중적 주름이 접히는 방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박준영(2023), 앞의 책, 422쪽 참고.

과의례가 뒤늦게 재개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아, 들어가니깐 뭐, 방도 여전하고 아주 뭐, 이부자리 깔아 놓은 채로 여전하고 그래, “어떻게 오셨소” 이래니 당신이 원이 저서 그래다니깐, “내가 원을 풀어 주러 왔다.” 이래니까, 원을 풀어주러 오셨으면 나가라 이기야. “나가서 뭐냐면 이 고을 원보고 얘기하라. 원에 가 진정서를 드려라. 내가 사실 이랬는데 진정서를 써 드려라.” (……) 인제 진정서를 받아가주 와야지. 내 방으로 그저 못 들어 온다 이래거든요. (……) “아, 인젠 됐다.”고. “그래 오늘 자고 가라.”고 그래. (……) 쪽도리 쓴 것 뺏겨 주고 옷을 다 뺏겨주고 그날 저녁에 침대를 깔고 잘 자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 것도 없고 그래, 좌우간 앞에 소복한 게 있어요. 그래 집은 그냥 그저 기와집이니 비가 칠칠 해고 땅바닥은 그저 먼지가 뿌옇게 끼어 있던 말이야. (……) 인제 베를 사다가 인제 그 하룻밤 자고 원을 풀어 주고 베를 사다가 좋은 땅에다가 묻어주고 그랬으니까 인제 그렇지, 자기 인제 그 담은 잘 되는 거지.

-〈1〉, 449~450쪽.

위 인용문에서 신랑이 다시 찾아간 신방은 혼인한 날과 다르지 않고 ‘여전하’며, ‘이부자리’도 ‘깔아놓은 채로 여전’한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부 역시 ‘쪽도리’와 ‘혼례복’을 입은 채 혼례가 중단된 순간의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는 중단된 통과 의례로 인해 발생한 상실의 감각적으로 잔존하는 물질적 형상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러한 상실은 이 유형에서 혼례의 재수행과 장례의 거행을 통해 해소된다.

특히 위 각편에서는 이러한 의례 수행에 앞서 신부가 신랑에게 ‘고을

27) 이처럼 반드시 신부를 찾아가 일정한 물리적 행위를 수행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는 곳의 원리와 맞닿아 있으며, 의례에서 정형화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심리적 문제 역시 물질적 매개를 통해 풀어내는 방식은 이 이야기에 한국적 세계관이 내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원'에게 '진정서를 받아'올 것을 요청한다. 이는 자신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애도할 자격이 없는 대상으로 배제되었던 자신을 다시 공동체의 승인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공식적으로 복권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신부는 신랑을 신방으로 들인다.

이후 신부는 중단되었던 혼례를 다시 치를 것을 요청하며 신랑에게 '오늘 자고 가라'고 말한다. 이에 신랑은 '쪽도리'와 '옷'을 '벗겨주고' 동침하는데, 이는 혼례 절차를 완결하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하나의 통과의례를 마침으로써 다음 단계의 의례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서사에서 동침한 신부는 다음날 아침 비로소 '소박한 뺨'로 남게 되고, 신방은 '비가 줄줄 새는' 지붕과 '먼지가 뿌옇게 낀' '바닥'으로 변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혼례가 매듭지어짐으로써 상실의 흔적이 해체되고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⁸⁾ 이로써 신부는 장례를 지낼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위 인용문에서는 신랑이 '베를 사다가 좋은 땅에 묻어'주는 것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는 죽음을 사회적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애도의 절차를 완결하는 행위로 기능한다. 그리고 이후 신랑은 '잘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평생 불가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과거에 급제하고,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실에 대한 애도가 무사히 마무리된 두 사람은 경계 상태에서 벗어나 흐르는 시간으로 편입되며, 각자의 자리를 되찾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국면으로 나아가게 된다.

28) 강진옥(2001), 앞의 논문, 24~25쪽; 김영호(2019), 앞의 논문, 50쪽 참고.

5. 결론을 대신하여 : 끝내 애도되지 않은 상실

이처럼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유형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겪은 상실을 감각적 잔존과 물질적 귀환의 형상으로 드러내는데, 대부분의 각편에서 이들은 통과의례의 재수행을 통해 그 상황을 해소하고 사회적 위치와 단절된 시간을 회복한다. 즉 신부는 애도될 수 있는 인물로 복권되며, 신랑은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 첫 번째 혼례를 마무리함으로써 두 인물 모두 상실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유형의 모든 각편에서 이러한 애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소수의 일부 각편에 한정된 것이지만²⁹⁾ 끝내 애도의 불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인저 당신이 큰 난이 일어나게 생겼으니 사전에 예방을 안하면 당신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 그 사람 맘을 달래고 풀고 하는 축을 이만큼 [두 손을 약간 벌리고] 써주면서, (……) “그 여자가 밤중이 되면 나와 가주구 스스로 잠긴 문이 열려서 나온다.” 하드래요. 축을 읽으만. (……) 그래 열리길래 좇어 드러가서 그 자기 부인을 안고, 그렇게 돼고 그대로 있드랍니다. 그래 들어가서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인제 하소연을 하고 이러님께 마당에 가드니만은 그 동우를 옆에 찌고 따바리를 여고 물 이러 가드랍니다. 그라는 동안에 빨리 마루 밑에 감춰놨던 그 허수아비를 자기 자리다 높히고 자기는 그 열두 마판 최고 끝에 마판 밑에 가서 숨었드랍니다. (……) 하늘을 보고 축원을 하고 공을 디리고 난 담에 꼬두배길 한 그 세 번을 넘고 나니께 그 대호(大虎)가 되드랍니다. 그래가주구 방에 좇아 들어가닝게 허수아빌 높혀놨네요. (……) “요놈이 옛날에도 날 그렇게 쪽이드니 마지막 오늘날 또 속인다.” 카면서.

-<2>, 789~792쪽.

29) 이 유형 14편의 각편 가운데 <2>, <4>가 해당된다.

위 인용문은 신부의 상실이 애도로 전환되지 못한 채 좌절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이야기에서 신랑은 다른 각편에서와 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부에게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신랑은 대사의 지시대로 ‘축[祝文]³⁰⁾을 읽어 잠긴 신방의 문을 열어 신부와 대면하게 된다. 신랑은 이내 ‘쫓아 들어가서’ 신부를 ‘안고’ ‘잘못했다’고 ‘하소연’을 한다. 그런 다음 신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허수아비를 자기 자리에 높히고’ 자신은 ‘마판 밑에 가서 숨’는다.

즉 신랑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 신부에게 용서를 비는 듯 보이지만 결국 신부의 상실은 물론 자신의 상실도 제대로 직면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에서 상실의 발생은 혼례의 실패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매듭은 혼례의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함께 풀어야 하는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두 사람의 상실을 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신랑은 자신의 자리에 ‘허수아비’를 대신 놓음으로써 직접적인 대면을 회피한다. 이때 허수아비는 신부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사물적 대상으로 치환하는 신랑의 인식을 드러낸다. 이로써 신부와 신랑은 혼례의 주체로 마주할 수 없게 되고 애도의 가능성 역시 사라지게 된다. 이에 호랑이로 변신하여 나타나는 신부는 ‘옛날에도’ ‘속이더니’ ‘마지막 오늘’도 ‘속인다’고 하면서 분개하는데, 이는 끝내 복권되지 못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발화이다.

그래 장담이 새벽을 위해서 화를 치고 울드랍니다. 울웅께 그 귀신은 닭이 울른 째짜도 못하고 그 자기 집에 간다는 거, 그렇게 그 호랑이가 (……) 고만 닭을 태기나발을 쳐서 죽이드니 고 자리에 탁 사그라지드랍니다. 사그라져서 아무 것도 없드래요. (……) 그래서 그 사람이 (……) 염을 해서 행여

30) ‘축문’은 신랑에게 청원하는 글로 의례의 과정에서 신령을 감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색어 「축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7924>, 검색일 2025.8.20.

(상여)를 해서 그래 잘-따뜻한 양지, 명당자리 찾에 물어줬더니 그래 그 사람이 자손이 대대 성공하고 잘 살드립니다.

-〈2〉, 793쪽.

결국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신부는 끝내 혼례의 주체로 인정되지 못하고 상실이 물질화된 형상, 즉 ‘변신한 호랑이’의 모습에만 머물게 된다. 이는 닭 울음을 통해 소멸되는 신부의 형상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귀신’은 ‘닭이 울면 꿈쩍도 못’한다는 설정은 신부가 밤이라는 시간성에만 제한된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에 새벽이 되기 전까지 마판 끝에 숨은 신랑을 마주할 수 없었던 신부는 ‘닭’만을 ‘죽이’고 ‘사그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부의 흔적을 신랑은 ‘염을’ 하고 ‘상여를 해서’ ‘명당자리’에 묻어 장례를 치러준다. 결국 신부는 장례의 대상으로만 승인되며 혼례의 실패라는 상실은 애도되지 못한 채 소거된다. 더욱이 신랑의 ‘자손이 대대 성공하고 잘 살’았다는 결말은 신랑의 상실 역시 애도되지 못한 채 망각으로 봉합되었음을 보여준다.

애도는 상실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회적·의례적 과정이자 통과의례이다. 따라서 애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애도의 주체는 무엇을 상실했는지, 애도의 대상을 정확히 직시하는 일이다. 애도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위 이야기에서 신부는 혼례의 주체로 복권되지 못했기 때문에 애도될 자격을 얻지 못하였고, 신랑의 경우는 혼례 실패라는 상실에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애도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신부의 상실은 소멸로, 신랑의 상실은 망각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끝내 애도가 성립되지 못하는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옥,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 -<아랑형>과 <사그라진 신부원귀>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1~45쪽.
- 강진옥,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학회, 2002, 2~66쪽.
- 권도영, 「복수하는 여성 원혼의 서사적 정체성」, 『여성문학연구』 5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3, 10~35쪽.
- 김대숙,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성제보자 구연설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문학학회, 2003, 225~252쪽.
-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 2-8 강원도 영월군 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김승찬, 『한국구비문학대계』 8-9 경상남도 김해시·김해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김영진, 『한국구비문학대계』 3-4 충청북도 영동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김영호, 「귀신설화의 서사 구조와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179쪽.
- 김영희, 「남성 주체의 결핍과 상실을 대리 표상하는 ‘사그라진 신부(新婦)’」,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1, 285~344쪽.
- 남기민,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이야기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64, 우리문학회, 2019, 207~233쪽.
- 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 8-4 경상남도 진주시·진양군 편(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몸문화연구소, 『신유물론』, 필로소픽, 2023, 1~292쪽.
- 박우란, 『애도의 기술』, 유노라이프, 2023, 전자책.
- 박준영,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 그린비, 2023, 1~800쪽.
- 빅터 터너, 『제의에서 연극으로』, 이기우·김익두 옮김, 현대미학사, 1996, 1~254쪽.
- 심귀연,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날, 2024, 전자책.
- 이현수, 『한국구비문학대계』 6-5 전라남도 해남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정상박·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 8-13 경상남도 울산시·울주군 편(2), 한국

- 정신문화연구원, 1986.
- 정상박·류종목, 『한국구비문학대계』 8-2 경상남도 거제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조동일·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6 경상북도 영덕군 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조동일·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7 경상북도 영덕군 편(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65~96쪽.
- 최정여, 『한국구비문학대계』 7-11 경상남도 군위군 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최원오, 「'원형 개념'으로서의 변신에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특성과 변신 미학」,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회, 257~280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7924>, 검색일 2025.8.20.

ABSTRACT

Sensory Residue, Material Return, and the Configuration
of Mourning in the Folktale *The Bride Abandoned
on the First Night*

Han, Yujin

This paper analyzes how the losses experienced by the bride and groom in the folktale *The Bride Abandoned on the First Night* are materialized when the wedding is interrupted and mourning fails to occur. First, the bride appears in the forms of the “immobilized bride” and the “transformed bride.” The “immobilized bride” is a figure fixed at the moment when the wedding was interrupted, which is the result of the wedding’s failure, the absence of a funeral, and the neglect of the community converging and solidifying materially. The “transformed bride” can be interpreted as a form in which resentment and grievance caused by the bride’s injustice transform her body and return emotions in material form. In this way, the “immobilized bride” testifies to the unacknowledged event and calls the community to responsibility, while the “transformed bride” more actively explodes her resentment and demands a response from the community.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groom, loss appears in the forms of “the externalization of inner anxiety” and “the recall of the past.” The wedding failure, engraved as threat and wound to the groom, remains as an unresolved residue and continues to affect the present as a material remnant. In the narrative, the groom receives a divination that he will soon face death or will never succeed in the state examination,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unacknowledged loss returning materially and permeating the present. In addition, the groom’s path through the bride’s village functions as a medium that recalls memories of the past, and the recalled memories overlap with the present space

and are rearranged within the folds of time.

In this way, the bride and groom come to mourn the situation of loss and recover their social positions and severed time through the re-performance of the interrupted rite of passage. The bride who slept with the groom remains the next morning as a pile of bones, and the groom collects them and holds a funeral, which functions as an act that socially acknowledges death and at the same time completes the mourning procedure.

On the other hand, some versions reveal the impossibility of mourning. In this narrative, the groom avoids direct confrontation by setting up a scarecrow in his place. As a result, the bride ultimately fails to b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the wedding, so that the loss is extinguished as a materialized form, while the groom's loss is sealed by oblivion, showing a phase in which mourning does not come to be established.

Key Words *The Bride Abandoned on the First Night*, Loss, Mourning, Transformation, Resentful Spirit, Sensory Residue, Material Return, Rites of Passage, Materiality, New Materialism

논문투고일: 2025.09.30.
심사완료일: 2025.11.11.
게재확정일: 2025.11.20.